



거북이처럼 천천히 하지만 넓게 보는

장애여성공감

영화 <오아시스>의 주인공 상두가 장애인인 공주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떠올린다.

상두는 혼자 사는 공주의 집 열쇠를 훔쳐 들어가서 공주를 보고 신기해한다. 마치 갓 태어난 강아지를 만지듯이 신기해하며 발가락을 조물조물 만져댄다.

“장애인인 저희가 영화를 봤을 때 이 장면, 중두가 누워 있는 공주의 발을 만지는 장면에서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중두가 공주를 성폭행을 하고 나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괜히 막 화풀이를 하죠. 영화

는 그거죠. 마치 여성장애인은 여성이 아닌 다른 존재로 비춘 거죠. 그 영화 카피문구에 뭐라고 쓰여진 줄 아세요? ‘사랑을 통해서 여성이 되었다’ 저는 이 문구가 너무 화가 나거든요.”

<장애여성공감>의 대표 박영희 씨는 또 “집에만 있던 장애여성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 준 것으로 폭행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거죠”라며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에 날을 세운다. 사람이 화가 나면 표정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목소리가 커지고 가히 흥분의 도가니가 돼 버리는 ‘두 얼굴의 사나이형’. 다른 하

나는 흥분의 수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더 냉정을 찾는 '침착형'이 있다. 박영희 대표는 후자인 침착형의 전형이 아닐까. 날카로운 말을 던지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그와 마주앉아 있으니 속내를 들킨 것처럼 가슴 한켠이 짠하다.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고 킁킁거리던 비장애인의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뉘우치고 싶은 심정이 든 때문이다.

장애여성들의 현실

지난 1999년 2월에 창립한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장애우)에 있던 여성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에서 일하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나와 만든 장애여성 인권단체다. 당시 장애우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장애인 문제 안에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문제, 그 안에서도 여성 장애인의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운동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장애여성의 문제는 여성의 감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미 성인이 된 그들은 '장애'를 가진 부담감 때문이라도 집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중 3명이 고덕동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주변의 장애여성들이 모임에서 영화보기, 책읽기, 토론하기 등을 시작했고 차츰 내용이 쌓여 갔다. 그 시절 '우리 몸-내가 느끼는 내 몸'이란 주제로 자신들의 솔직한 생각을 글로 표현했는데 그들만 읽기엔 너무 아쉬워 <공감>이란 잡지를 만들어 세상에 내보였다.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창간호를 발행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모두 팔려나갔다고 하니 말이다. 얼마 전 KBS 독립영화관이란 프로그램에서 상영되기도 했던 단편영화 <거북이 시스터즈>는 본인들이 주인공으로 직접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영화는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여성공동체 부문, 2003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폐막작, 제7회 인권영화제에

서 상영되기도 했다.

“분명 여성장애인들도 ‘여성’이거든요.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느끼는 것이 비장애여성들과 똑같다는 걸 서로 공감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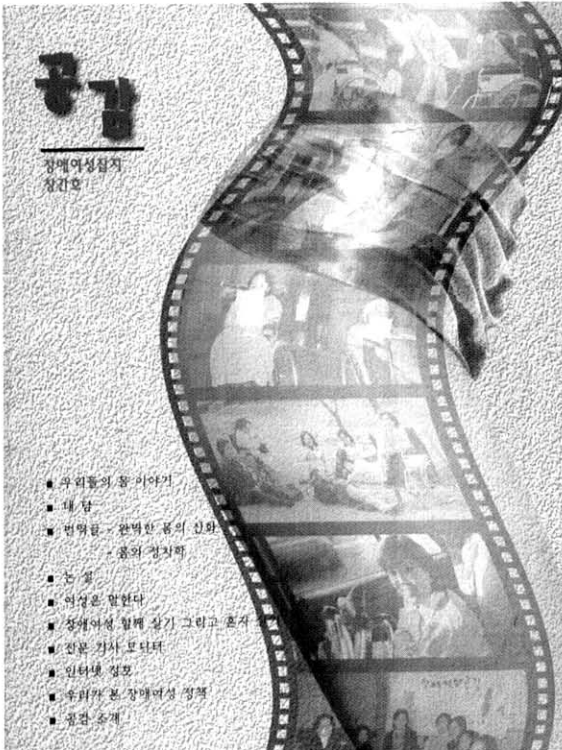
비장애인들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싶어 잡지를 만들었다는 박영희 대표의 말이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교육면에서 여성장애인인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나 무학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또한 그들을 안타깝게 한다.

“집안에 남성장애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서든 고등학교과라도 졸업시키려고 하는데 여성장애인일 경우는 아예 ‘학교’라는 교육에 접근조차 못합니다. 경제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 중에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생기면 아예 교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교육문제도 그렇고 우리 사회 구조가 장애인이 박사학위를 따더라도 그를 받아 줄 노동현장이 없으니까요.” 자신도 초등학교 2년 교육이 최종 학력이라며 말하는 박 대표의 얼굴에는 얼핏 선웃음이 지난다.



'우리 몸-내가 느끼는 내 몸'이란 주제로 <공감>이란 잡지를 창간했다.

교육과 장애여성

<장애여성공감>은 3년 전부터 한 주제를 잡아 연구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장애여성과 노동', '장애여성과 교육', '장애여성의 성', '장애여성과 폭력' 등인데 이 교육과정은 매월 한번씩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1년에 한번씩은 캠프를 가서 그동안의 교육과정을 심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퍼포먼스, 춤, 연극 등 장애여성들이 스스로 표현하는 모든 것을 난장으로 만든다.

이 단체의 연극 동아리인 '춤추는 허리'처럼 비장애인들이 함께 활동하는 분야도 있다. 장애문제 해결에는 비장애인도 함께 나서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동의 자유로움이 없는 이들에게는 당

장 부딪히는 이동이란 문제를 넘어서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연극 한 편을 만들기 위해 직접 자신들이 대본을 쓰고 연습을 해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말 못할 아픔과 땀, 그 모든 것이 녹아있는 것이니 비장애인들이 만드는 연극과는 사뭇 그 성질이 다를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진행하면서 장애여성들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어찌보면 사회와 국가가 만들어 줘야 할 것을 그들 스스로 풀어가고 있으니 결과가 어찌됐든 무언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장애여성공감>의 부설기구인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15개인데, 날이 갈수록 상담이 폭주하고 있으니까 상황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죠. 장애여성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성폭력'입니다. 상담소에 문의 오는 것 중에 성폭행 가해자가 오히려 '그래도 자기가 인간대접 해 줘서 그런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신고를 해' 하는 식이죠.” 박영희 대표는 이런 장애여성들을 위해 쉽터를 마련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3자에 의한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지만 기혼 장애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면 도무지 갈 곳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일반 여성단체의 쉽터에서 장애여성들을 받아 주지 않는 상황이니 그들을 위한 심리적 치유프로그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상황을 기대하기는 더욱더 힘든 일이다. 뿐만인가. 가족 내에서 장애여성들에 대한 모욕 내지 멸시나 구박도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집안에 '장애자'가 생기면 항상 어머니나 여성들이 봉사자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그런 봉사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이 막상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되면 대부분의 남편은 장애를 가진 부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막막해 한다. 그런 상황이 더 악화되면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지고 폭력이 일상화 되면 장애여성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이혼을 당하거나 방치되고 마는 것이다.

같은 위치에서 그들을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비장애인들은 옆에 있는 리프트를 무심하게 스치고 지나가지만 장애인들, 특히 장애여성들은 고장이 난 리프트를 만나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휠체어 리프트가 고장나면 그 역은 무슨 행사 치루는 날이 되거든요. 휠체어가 무거워서 역무원 혼자 들지 못하니까 지나가는 장정 몇 사람 붙들고 해서 간신히 올라가죠. 어떨 땐 역무원이 그래요. 휠체어에 앉아 가면 드는 사람이나 앉아 있는 사람이나 모두 힘드니까 그냥 자기 등에 업혀가라고……, 처음 본 남자 등에 업혀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비장애여성들처럼 똑같이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진 길을 만들지 못한 것에 고민을 해야 하는데 경사진 길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가 가장 큰 문제라는 박 대표의 말이 뇌리를 파고 든다.

그녀는 장애가 없는 이들에게는 일상의 저편일 뿐인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지하철역 화장실에 가면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중간에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 장애인 화장실을 지으면서 어떻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만들었을까. 공공장소의 일반 화장실을 남녀가 함께 쓰도록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라.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성의가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 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시각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얼마나 다르겠는가. 장애인은 소수자다. 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다.



비장애인들이 무심코 지나는 장애인들의 남여 공동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을 지으면서 어떻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만들었을까.

소수를 배려하는 사회, 더 나아가 소수자도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가 곧 우리가 꿈꾸는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된 모습일 것이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박영희 대표가 빼있는 말을 던졌다.

“앉아 있는 저희 같은 사람이 위를 쳐다보고 말할 때 드는 위화감을 아세요? 그들이 앉아 있는 사람과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조금씩 변할 것 같은데, 아래를 내려다보고 말하는 사람은 같이 앉으려고 하질 않아요. 앉아서 위를 바라보는 세상은 정말 다른데……. 외모나 신체적 조건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정상성 중심의 우리 사회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한다. 그러면서 은연 중에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비정상으로 구분한다.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 또 누구의 입장에서 정상의 기준을 정하는가. 그렇게 규정짓는 장애인들, 과연 우리는 정상인가.

〈황석선 기자〉